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빠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4) 식(識)의 개념과 기능

감각대상을 알아차리고 존재형성에 중요한 역할

일단 어떤 특정한 지각이, 그것이 전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점점 강력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지며 그 결과는 <숫타니파> 계승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지각에서 벗어난 사람 그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지혜로 해탈을 성취한 사람 모든 미망이 그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나 감각적 지각에 또 사로잡히고 그릇된 관점에 집착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아웅다웅 다투며 산다.”

상(想) 다음이 행운(行蘊)입니다. 이 행운, 상카라(sankhāra)는 쓰이는 곳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해 딱히 한 영어 단어로 대체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오온에서 거론될 때는 ‘의지적 형성력(volitional formations)’이란 뜻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문맥에서는 ‘조건 지어지고 복합된 것’을 뜻합니다.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諸行無常)’고 말할 때 상카라는 모든 복합되고 조건 지어진 것, 즉 원인과 조건들의 영향으로 존재하게 되고 다시 그 스스로가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기관(意根)이 행운에는, 앞에서 설명한 수(受)와 상(想)을 제외한 모든 정신적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52개의 정신적 요소(cetasika)를 들고 있습니다. 수와 상도 그 중의 2개이지만 이들은 의지적 형성력이 아닙니다. 나머지 50개가 정신적 또는 의지적 형성력인 상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는 정신영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업의 심리학을 다룰 때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식은(識蘊)은 사람을 구성하는 오온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식의 기능은 무엇일까? 수, 상, 행과 같이 식 역시 여섯 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 기능도 각기 다릅니다. 각 기능은 독자적인 기

반과 대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느낌(受)은 감각 기관(根)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경험됩니다. 정신적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이라는 기관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다른 다섯 기관처럼 만져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은 색의 세계 또는 가시적 대상을, 귀는 가청음을, 등등 이런 식으로 각기 인지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은 관념과 생각의 세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나 관념의 세계에 도달하면 마음이라는 기관은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신 영역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에 반해 눈은 가시적 형상, 즉 색깔의 세계를 보는 수단에 그칠 뿐이고 그 색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거나 관념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과 대상 간에, 가령 눈과 형상, 귀와 소리, 등등의 사이에 이 기능적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식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해당 식(識)이 없이는 아무리 민감한 감수성 일지라도 어떤 대상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 즉 눈과 형상과 안식(眼識)이 모여야만 축(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에서 수(受)가 오고, 수에서 애가 오고, 이런 식으로 연기법에서 설하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식이 감각 기관과 그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生起)한다 할 때 이 말이 결코 식이 순전한 물질들인 감각 기관과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식은 단순히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유물론자들의 이론에 동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식의 기능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 눈이 가시적 대상과 마주치게 되더라도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맙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진 것이며 그래서 변화가 마련이며, 따라서 그것은 물질과 대립하는 정신 또는 영혼이 아니고 물질의 소산인 투사(projection)도 아닙니다. 식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대

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식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식을 오온의 하나로,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말 뿐, 식의 보다 깊은 해석, 그것이 안고 있는 보다 넓은 면모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의 개념을 윤회설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존재형성과정에서 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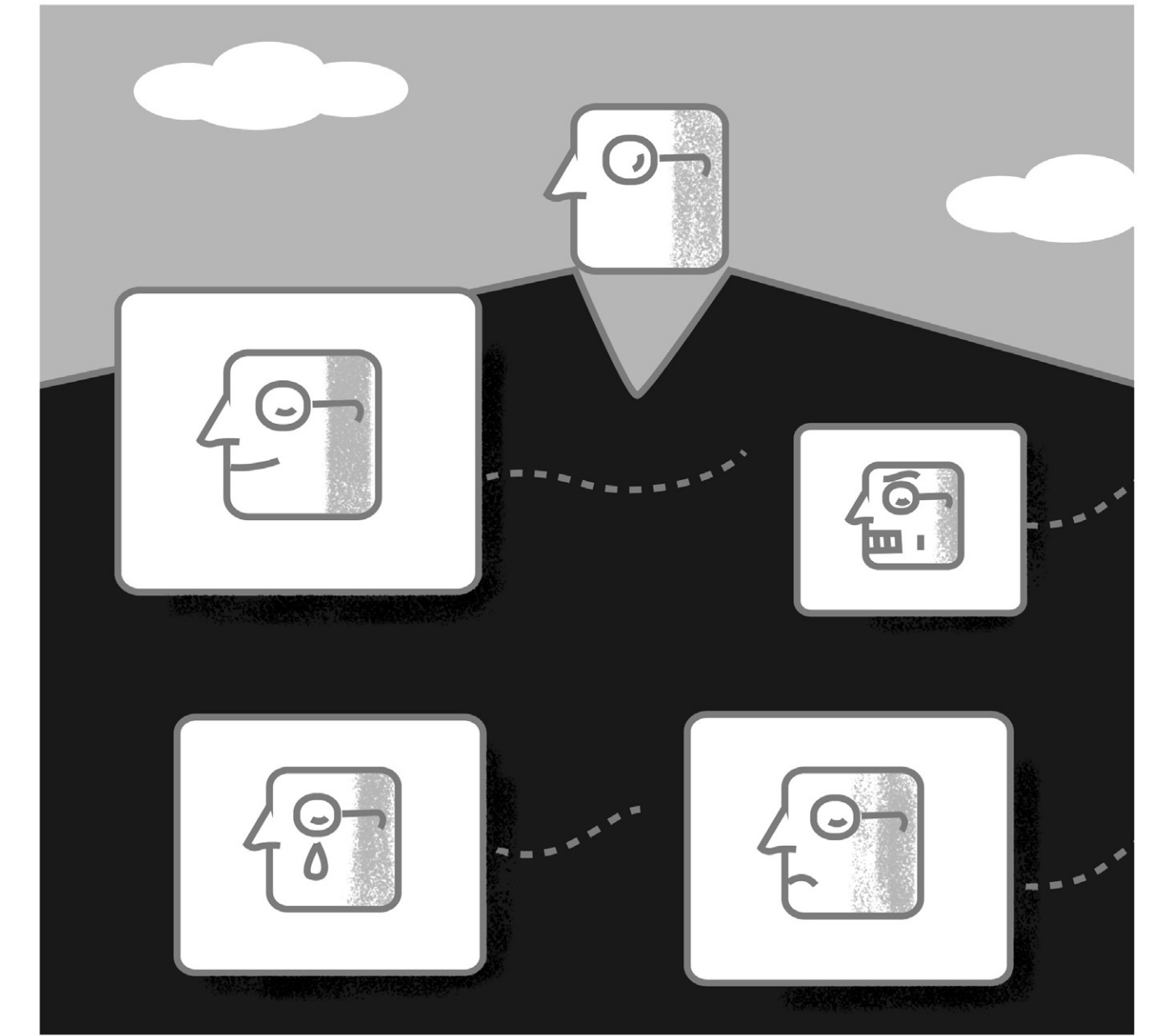
전생(轉生)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은 연기법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에 연하여 식이 있다.’ 즉 전생의 선·악 행위 또는 업이 금생의 의식 생활을 조건 지어준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식은 지금 현재의 존재와 관계있는 최초의 요인 내지는 현재의 존재를 조건지어주는 최초의 고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이 하나의 단일 존재에 귀속하는 의식의 흐름 중 최초의 것이기에 보통 재연결식 또는 재생식이라 부르기도 합

식은 現존재 조건 지어주는 첫 고리 전생 최후 순간 死識에 의해 금생의 첫 순간 재생식 생겨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식의 연속상태

식의 흐름은 존재의 근본 원인인 탐진치 근절되면 멈춘다



니다. 이에 반해 상카라는 업이라는 형태로 재생을 일으키는 원동력 구실을 합니다. 우리는 ‘상카라’와 ‘원나’라는 두 정신적 요소들이 벌이는 역동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상카라는 업을 의미하는 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일체의 행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업이며 이 행위들이 불러일으키는 반응들이 재생의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행은, 다음 생에서 새 인격을 좌우하는 바로 그 부분의 식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生)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온이 가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에너지나 힘이 불포화 명과 색(名色)이 가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에너지 또는 힘은 어느 한 순간도 그대로 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과 색이 끊임없이 합류하는 그 속에 항구적인 것이 없다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한 남자는 소년 시절의 그 사람이 아니며, 그렇다고 생각만 따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지 밀접한 연속

상태라는 관계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몸과 몸, 또는 정신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의 합류 현상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 에너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합류현상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 재존(再存), 또는 재유(再有)라 부릅니다. 업의 전개란, 끊임없는 연속선상에서 미래의 생을 조건지어나가는 현생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또는 전생(轉生)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되는 운동일 뿐입니다. 여기를 떠나 판 곳에 태어나는 ‘존재’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연 다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앞의 전생에 속하는 최후 순간의 식(死識 또는 死心)이 있습니다. 그 식이 사라지면 곧바로, 그 식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금생의 첫 순간의 식이 생깁니다. 이 식을 재연결식 또는 재생식이라 부르는데, 새로

이 시작된 개체의 정신생활의 첫 움직임인 셈이지요. 마찬가지로 금생의 마지막 심찰나(心剎那)가 내생의 최초 심찰나를 조건 지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은 존재에 들어왔다가 새로운 식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집니다. 이처럼 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지속 되다가 마침내 존재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근절되어 존재가 끝나게 될 때에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두말할 것 없이 탐, 진, 치의 삼독심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존재란 살려는 의지로서의 식, 그 자체입니다. 재생식을 가리키는 빠알리어 ‘빠피산디 율나나’는 아비담마(論藏)에만 나오는 용어로서, 그 자세한 풀이도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와 연구서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피산디’는 문자 그대로 재연결, 재결합, 재회를 뜻합니다. ‘그 식(識)은 한 존재를 후속 존재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재결합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문리서즈 7”(고요한 소리)의 내용입니다.

<p>불자 정보 881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p>	<p>포교원(금)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리리 148번지 • 4층 건물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p>	<p>사찰 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당: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p>	<p>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 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차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85-1119</p>	<p>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 공업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p>	<p>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군 도전면 송진리 240번지 • 평수: 약 59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동 13평, 5평 011-571-8961 010-2739-3816</p>	<p>사찰(금)안내 • 위치: 경북 청송 • 대지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p>
<p>사찰터(금)안내 • 위치: 경북 안동시 길안면 • 대지-48평 전-102평 • 물, 전기, 도로접 • 정남향 위에는산 • 양도가액: 2천만원 054)335-0667</p>	<p>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 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순간온수기, 비데설치, 에어컨2대, 불상1, 후불행화1 • 식수 자연생수(색간수, 텃밭, 차고있음) • 마을에서 500m떨어져 있음 • 20m 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6500만원 010-3509-0124</p>	<p>포교원 안내 • 위치: 하남시 장우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 방 3, 법당 1, 주차 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전세가능, 시설비 협의 031)791-9022</p>	<p>도심사찰 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5분거리 • 상가 접한 1층, 주택 전체 (반지하방 2칸포함) • 불단, 불상 및 제반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7백만원 010-2262-8003</p>	<p>사찰 안내 • 위치: 부산 동구 수정동 • 대지 50평, 1층 요사채 40평 • 방 4, 2층 법당 35평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수정산 공원 접 주차완비 • 가액: 2억 8천만원 011-238-5810</p>	<p>암자터 안내 •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농림관리지역 503평 • 주변 국유지(계곡, 개울)가 사계곡급지점 • 주변 암석바위 맑은계곡 • 마을에서 약 500m, 비포장 약 250m • 가액 3500만원 • 오후 5: 30 통화가능(오전 7시경) 010-3288-1317</p>	<p>토굴 안내 • 위치: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 땅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 6평 • 화장실 2, 차고 1 • 가액: 1억 1천만원 절충가능 • 꼭 확실한 전화를주세요 010-9183-0654</p>
<p>사찰(금)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입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p>	<p>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용호2동, 컨시장 근처 • 불사하기 좋음, 위치 좋음, 주택 뒤 • 법당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인등, 산신인등, 영가단, 뒷출행화, 평수 21평, 발화가능 • 방 1, 다락 2, 주방, 수세식화장실, 샤워가능 • 전세 25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주차가능 010-4747-8796</p>	<p>포교원(금)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2층) • 30평 가량 • 법당, 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삼존불, 맞춤행화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p>	<p>암자터 안내 • 위치: 충남 연기군 • 세종시에서 15분거리 • 전 420평, 전기 도로 되어 있고 • 청정계곡 옆에 있음 • 가액: 6천만원 011-753-0768</p>	<p>사찰 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총평수 400평 • 종교부지 200평, 입야 200평(주차공간)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고속도로 옆 • 가액: 대출 1500 포함 9000만원 010-2407-5899</p>	<p>토지 안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 전, 면적: 1250㎡(1필지), 가액: 5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함 • 진입도로 개설, 차량통행, 토목공사 평탄 완료, 전기시설 • 당진-대전고속도로 유구IC 근접(약 7km)거리 • 조망 최고자리임, 후천용도, 암자, 공부자리 010-2429-2069</p>	<p>사찰 안내 • 위치: 파주시 광탄면 (서울에서 시내버스 1시간) • 산림에 아담한 법당 • 법당 약 20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250평 사용 • 즉시법회 가능(사정상 급함) • 전세 5000만원 010-4718-4123</p>